#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유봉호(단국대학교 조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 활성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고자, 창업동기를 비롯한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과 같은 창업가적 심리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181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두 변수가 창업동기의 선행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 두 변수의 선·후행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창업동기가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으로 하여금 창업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욕구, 창업가정신, 특히 창업동기와 같은 창업가적 심리특성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의지관련 이론적 시사점은 물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성취욕구, 창업가정신, 창업동기, 창업의도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 서론

창업은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동력이다. 그 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창 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 어 창업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창업 을 결정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 로 창업은 창업의지(start-up intention)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창업의지 없이는 창업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 즉, 창 업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Bird, 1988). 그만큼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Shapero(1982)는 불경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의지가 있는 잠재적 창업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창업의지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창업의지 는 창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기 때문에 창업가정신 연구의 성과변수로서 보다 폭 넓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Krueger, et al., 2000). 창업동기(start-up motivation)에 대한 연구 또한 커다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Naffziger, et al., 1994),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Carsrud, & Brannback, 2011). 그 마저도 일관성이 없고 매우 단편적이다(Baum, et al., 2001; Shane,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Malebana, 2014).

그동안 창업의지와 창업동기의 원천으로 개인특성이나 창업환경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큼중요한 변수도 없다(Crant, 1996). 개인의 성향이 모두 창업가정신의 예측변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Shaver & Scott, 1991), 창업가적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이다(Kolvereid, 199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업가의 성향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나름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듯이, 적응성·활력·자율욕구(Sexton & Bowman, 1986), 성취욕구·위험감수성·내적통제소재(Gartner, 1985), 성취성향·혁신성·진취성·위험감수성·창의성(Park, et al.,

<sup>\*</sup>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bongho@dankook.ac.kr

<sup>·</sup> 투고일: 2015-05-14 · 수정일: 2015-06-22 · 게재확정일: 2015-06-29

2014) 등 연구자 마다 살펴 본 변수들이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성취욕구(McClelland, 1985; Leung, et al., 2012), 위험감수성(Brockhaus, 1980; Leung, et al., 2012), 진취성(Crant, 1996; Koh, 1996), 자율성(Wu, et al., 2007)과 같은 개인적 성향은 창업가적 태도와 활동을 촉 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욕구(achievement needs)는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특성으로서 (Brockhaus, 1986)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arsrud & Brannback, 2011). 마찬가지로 위험감수성(risk taking), 진취성 또한 자율성(autonomy) 창업가정신 (proactiveness), (entrepreneurship)의 구성개념(Lumpkin & Dess, 1996)으로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감수성은 창업가의 특성이 라 볼 수 없다는 반론(Low & MacMillan, 1988)도 있지만, Baron(2008)과 같은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가정신의 대표 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진취성 역시 현재의 상황에 안주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일을 벌이고 힘차게 앞서 나가고자 하는 추진력으로서 창업가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자율성 또한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성향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창업가적 특성임에 틀림없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내포한 창업가정신이나 성취욕구와 같은 창업가적 심리특성들이 창 업동기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동기 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틀을 통하여 앞서 지적한 선행연구 의 논점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면 다소나마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의지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처럼 잠재적 창업가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창업가를 표본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가 아닌 이미 창업가적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창업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 다. 그러기에 현재 창업 중인 창업가들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검증해 본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흔히 볼 수 없는 표본과 본 연구만의 새 로운 틀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창업가정신 연구 분야에 학문 적 시사점은 물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2.1 성취욕구

성취욕구란 스스로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Haney, 1992).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인식 또한 각별하다.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으로서 위험감수성도 강한 편이다. 아울러 창업가와 매우 밀 접한 연관성이 있는 (McClelland, 1961) 성취 욕구는 창업가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Brockhaus, 1980; McClelland, 1961, 1985) 잘 알려진 창업가적 심리특성이다(McClelland, 1961). 그러므로 창업가는 대부분 성취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가와 전문경영자를 비교해 볼 때, 기업성과에 대한 성취욕구가 크게 다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Carsrud & Brannback, 2011), 성취욕구가 강한 창업가는 보다 높은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짙 다(Begley & Boyd, 1987). 이와 같은 성취 욕구는 크게 직무 성취욕구와 자아성취욕구로 구분된다. 직무를 통하여 성취감 을 느끼고자 하는 직무성취욕구와 달리, 자아성취 욕구는 새 로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Robert & Alan, 1972). 그러므로 직무성취 욕구에 비해 자아 성취 욕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창업과 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 2.2 창업가정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발전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Sesen, 2013). 기업가정신은 자원의 새로운 조합을 통하여 창조적 파괴를 이룩할 수 있는 원천이며(Schumpeter, 1934),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하는 불굴의 정신이다(Timmons, 1999). 다시 말해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을설립하는 행동 즉, 창업과 일맥상통하게 사용되고 있다(Gartner, 1988).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은 서로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가라는 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정신이 아닌 창업가정신을 채용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창업가정신은 그 구성개념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였다. 예컨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 창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이라주장한 Miller(1983)에 이어, Lumpkin & Dess(1996)는 자율성과 경쟁적 적극성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창업가정신의 구성개념으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혁신성은 창업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Kolvereid & Isaksen, 2006; Kropp, 2008)의 논의에비추어, Miller(1983)가 주장한 세 가지 구성개념 중에서 혁신성을 제외시켰다. 반면에 자율성이 창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Sexton & Bowman, 1986)는 주장에 따라 이를 포함시켰다. 결국 Miller(1983)와 Lumpkin & Dess (1996)의 연구를바탕으로, 창업과 보다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창업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 2.3 창업동기

창업 동기는 새로운 사업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의

미한다(Johnson, 1990). 창업 동기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신사업을 벌 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Ajzen, 2005). 따라서 창업 동기는 창업가적 행동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Shane, et al., 2003). 이러한 창업 동기는 창업가 의 개인적 성향과 환경에 의해서 유발된다(Taormina & Lao, 2007). 뿐만 아니라, 창업가의 능력, 목표, 사업 아이디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Naffziger, et al., 1994). 결국 창업 동기는 창업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창업 이후에도 기업의 특성을 결 정짓는 요인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Beglev & Bovd, 1987). 일반적으로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로 구분된다. 동기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내적 요인에 따 라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와는 달리, 외재적 동기는 외적 요 인에 의해 유발된다(Mitchell & Denis, 2003).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창업동기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 내 재적 동기는 성취감이나 성공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 동 기가 유발되는 반면, 외재적 동기는 돈이나 권력, 신분과 같 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Carsrud & Brannback,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로 창업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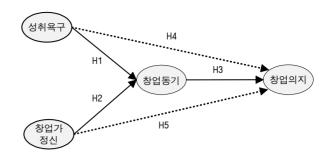
####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가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서, 창업과정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Bird, 1988). 다시 말해서, 창업의지는 스스로 미래에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창업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Ajzen, 1991; Crant, 1996). 이와같이 창업의지는 당장 창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보다 높은 창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rueger, et al.(2000)은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창업의지라며, 신뢰할만한 창업 예측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창업의지 또한 창업을 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 Ⅲ. 연구 설계

#### 3.1 연구 모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취욕구 및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으로 구성된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다시 말하면,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변수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연구 가설

#### 3.2.1 성취욕구와 창업동기의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편이다 (Alderfer, 1969). 이처럼 개인적 심리특성은 창업동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Taormina & Lao, 2007). 그중의 한 요인으로서 성취 욕구를 들 수 있다(Gartner, 1985; Taormina & Sammi, 2006). 성취 욕구는 창업성공을 위한 동기로도 주목 받고 있다(Wu, et al., 2007). 이와 같이 동기적인특성을 지닌 성취 욕구는 벤처 창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창업 동기는 성취욕구와 같은 일반적인 동기들로부터 야기된다(Shane, et al., 2003). 그러므로 성취욕구가 강한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McClelland, 196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취 욕구는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의 관계

위험감수성은 창업동기의 한 요인으로서(Gartner, 1985) 창업 동기를 더욱 유발시킨다(Douglas & Shepherd, 1999). 이와 같이 위험감수성은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hn, et al., 2013). 벤처 사업에 대한 진취적인 관심과 태도 역시 창업동기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Long, et al., 1995).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 진취적일수록 창업 동기는 더욱 강하게 유발된다(Leffel, 2008). 마찬가지로 자율성도 창업동기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Scheinder, et al., 2008; Sexton & Bowman, 1986; Wang, et al., 2006). 그러므로 자율욕구가 강할수록 창업동기도 강하다(Brush, 1992).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내포한 창업가정신은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가정신은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기(Ajzen, 2005)는 창업가적 행동을 유발 시키는 원동력이다(Mathews, 2008). 이와 같이 동기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Kuratko & Hodgetts, 2007). 다시 말해서, 창업동기와 창업의지는 서로 깊은 연관

성이 있다(Solesvik, 2013). 그러므로 창업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ruett, et al., 2009; Alan & Malin, 2011; Bahn, et al., 2013; Park, et al., 2014). 다시 말해서, 창업 동기가 강한 사람은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Shane, et al., 2003).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 동기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4 창업동기를 매개로 한 성취욕구와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과 관련된 동기요인으로 성취욕구, 독립심 등을 들수 있다(Lumpkin & Dess, 1996). 이러한 개인적 특성요인들로부터 창업동기가 유발되고 창업의지가 형성된다(Boyd & Vozikis, 1994). 예컨대,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집념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창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McClelland, 1962). 이처럼 성취 욕구는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Shane, et al., 2003), 창업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ruett, et al., 2009; Alan & Malin, 2011; Bahn, et al., 2013; Park, et al., 201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창업의지 간에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 동기는 성취욕구와 창업의지 간에 정(+)의 때 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2.5 창업동기를 매개로 한 창업가정신과 창업의 지의 관계

진취적일수록 창업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창업가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Leffel, 2008). 그러므로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Ajzen, 1991). 이처럼 자율성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해준다(Kolvereid & Isaksen, 2006). 마찬가지로 위험감수성도창업동기를 강하게 유발시킨다(Douglas & Shepherd, 1999).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내포한 창업가정신은 창업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아울러 창업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ruett, et al., 2009; Alan & Malin, 2011; Bahn, et al., 2013). 다시 말해서, 창업동기 없이 창업가정신만으로는 결코 창업의지가 충만 될 수가 없다(Famous & Okafor,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 동기는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정(+)의 메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은 대부분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는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기업특성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5점으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변수 정의	선행연구	문항
성취욕구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통해 자신만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 는 욕구	Jones(1986) Yukl(1990)	4
	위험 감수성	불확실할지라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기 위하여 과김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	Lumpkin & Dess(1996), Naman & Slevin(1993)	3
창 업 가 정 신	진취성	남보다 먼저 앞서 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성향	Becherer & Maurer(1999) Lumpkin & Dess(1996)	3
	자율성	타인의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의사결정 하는 성향	Engel(1970) Spreitzer(1995)	3
창업동기		창업기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내·외재적 욕구를 유발시키는 동력	Deci(1975) Lee(2006)	6
칭	l업의지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수행하고 자 하는 계획적인 의도	Bird(1988)	5

#### Ⅳ. 실증 분석

#### 4.1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들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181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대졸(61%)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30-40대(87%), 남자(90%)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도권(77%)에 소재한 제조관련 기업(71%)의 창업자로서 대부분 동종업계 경험(70%)을 가지고 있다. 표본 특성은 <표2>와 같다.

# 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평가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4>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가 0.8이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2> 표본특성(n=181)

성별		연	령	학력		업종		소재지		동종업계 경험		창업 경험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범위	빈도 (%)
남	163 (90)	20대	24 (13)	고졸	18 (10)	제조	88 (49)	서울	139 (77)	ᅇ	126 (70)	유	61 (34)
여	18 (10)	30대	107 (59)	대졸	110 (61)	서비 스	53 (29)	지방	42 (23)	무	55 (30)	무	120 (66)
		40대	50 (28)				40 (22)						

#### 4.2.2 집중타당성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세부요인(관측변수)들 간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한 후, 상위 확인적 요인분석인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4→와 같이 적합도지수가 기준치를 모두 상회함으로써 각 잠재변수별 집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첫째, 각 구성개념의 표준화요인부하량이 모두 0.6이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둘째,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모두 0.6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셋째, 모든 잠재변수의 신뢰도(CR) 값이 모두 0.9이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 4.2.3 판별타당성 분석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을 측정하기 위한 판별타당성 검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1로 제약시킨 제약모형과 제약시키지 않은 비 제약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둘째,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첫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Lee & Lim, 2007).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여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3>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척도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							
7=	(1)	(2)	(3)	(4)				
성취욕구 (1)	.675							
창업가정신 (2)	.576	.817						
창업동기 (3)	.582	.518	.618					
창업의지 (4)	.535	.522	.511	.714				

p<.01

<표 4> 잠재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타당성 평가결과

	변수	표준화 요인 부하량 ≥.5	GFI≥.9 CFI≥.9 AGFI≥. 8	AVE ≥.5	CR ≥.6	크론바 알파 ≥.7				
성	취욕구	.759 .965 .898 .623	.955 .966 .814	.675	.987	.884				
창 업	위험 감수성	.792	.952		.984					
가 정	진취성	.979	.978	.817		.903				
신	자율성	.930	.910							
창	업동기	.792 .847 .742 .640 .875 .798	.906 .924 .817	.618	.997	.902				
창	업의지	.874 .904 .920 .731 .780	.954 .975 .863	.714	.987	.926				

#### 4.3 확인적 요인 분석

#### 4.3.1 전체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전체요인 간의 집중·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적합도지수가 χ²=658.180, d.f.=243, Cmin./d.f.=2.709(≤5), p=0.000, GFI=.884, AGFI=.833, IFI=.982, CFI=.981, RMSEA=.047로 나타났다. GFI가 기준치보다 약간 부족하나 다른 적합도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상회한 점을 감안하여 수용할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표 5>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이 0.001% 유의수준에서 표준화요인부하량, t값, 개념 신뢰도 등 기준치를 모두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4개 잠재변수의 집중·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 4.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적합도지수가  $\chi^2$ =807.510, d.f.=246, Cmin./d.f.=3.283( $\leq$ 5), p=0.000, GFI=.867, AGFI=.816, CFI=.940, IFI=.942, RMSEA=.063으로 나타났다. GFI가 기준치 보다 약간 부족하나 다른 적합도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상화한 점을 감안하여 수용할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1은 표준화경로계수가 0.352(t값=4.928, p<0.001)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Gartner, 1985; Shane, et al., 2003; Taormina & Sammi, 2006)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냈다. 가설2도 표준화경로계수가 0.662(t값=7.312, p<0.001)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어 채택되었다. 이 결과도 선행연구들 (Brush, 1992; Douglas & Shepherd, 1999; Leffel, 2008)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가설3 역시 표준화경로계수가 0.681(t

값=8.155, p<0.00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채택되었다. 이 결과 또한 선행연구들(Pruett, et al., 2009; Alan & Malin, 2011)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가설4-가설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모두 채택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Gu, 2010)가 주장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매개변수 판별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직접경로가 없는 모형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직접경로가 있는 모형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 두 모형 간의 카이제곱 차이를 분석하여, 카이제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도 1당 카이제곱 집이 3.841(0.05수준) 또는 5.024(0.01수준)보다 작아야 한다.

<표 5> 전체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5	S.E. ∠ 1.0	t값 ≥ 2.58	AVE ≥.5	CR ≥.6
	1.000	.666	-	-		
성취욕구	1.285	.893	.122	10.553	.686	.988
OTI - 1	1.259	.949	.115	10.994	.000	.500
	1.076	.776	.115	9.388		
창 위험 업 감 <del>수</del> 성	1.000	.773	-	-		
가 진취성	1.084	.972	.128	8.448	.815	.988
신 자율성	1.105	.949	.126	8.792		
	1.000	.849	-	-		
	.934	.786	.073	12.753		
창업동기	1.041	.777	.083	12.526	.617	.987
9H0/1	1.129	.872	.075	15.117	.017	.907
	.935	.780	.074	12.580		
	.790	.625	.086	9.223		
	1.000	.789	-	-		
	.951	.727	.090	10.607		
창업의지	1.302	.917	.090	14.408	.715	.987
	1.224	.902	.087	14.102		
	1.196	.877	.088	13.552		

주) 분석 시 1.000으로 지정하였음. t-value의 절대 값이 2.58 이상일 경우, 1%에서 유의함.

이에 근거하여, 첫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직접경로가 없는 모형의 가설1부터 가설4까지의 통계결과가 <표 7>과 같이 모두 유의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직접경로가 있는 모형의 가설 5부터 가설 7까지의 통계결과가 <표 7>과 같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이 두 모형간의  $\chi^2$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도 1도당 카이제곱의 차이 3.307(<5.024, p<0.01)을 나타내어 결국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세 가지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요약

기설	경로	기설 관계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value	채택 여부
H1	성취욕구 → 창업동기	+	0.352	0.075	4.928	***	채택
H2	창업기정신 → 창업동기	+	0.662	0.083	7.312	***	채택
H3	창업동기 → 창업의지	+	0.681	0.123	8.155	***	채택

<표 7> 창업동기의 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요약

기설	경로	기설 관계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value	검증 결과	채택 여부
H4	성취 <del>욕구</del> → 창업의지	+	080	.117	-1.078	.281	비유의	채택
H5	창업기정신 → 창업의지	+	0.042	.137	.419	.675	비유의	채택

# Ⅴ. 결 론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창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고 이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창업 가적 심리특성들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창업동기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대부분 예비창 업가나 잠재적 창업가를 표본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미 창업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비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하였다고 보여 진다. 특히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만큼은 예측이 아닌 결과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비창업 가 또는 잠재적 창업가들이 인지하는 창업의지는 미래지향적 인 생각일 뿐, 반드시 창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창업할 수 있는 여지로 창업의 지를 가름한 것이 아니라, 창업 수순을 밟고 있는 현재 진행 형의 창업의지를 가지고 고찰하였기에 관련변수들과의 인과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검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좀 더 주목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변수가 창업동기의 선행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선·후행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셋째,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업동기가 성취욕구 및 창업가정신이 더욱 창업의지를 강화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로 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만 한다.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은 심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유·소아기 부터 신경을 많이쓴다면 다소나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고난 기

질이라고 단정 짖기보다는 조그만 가능성일지라도 기대를 버 리지 말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가정은 물론 유아원부터 학교, 창업보육기관에 이르기 까지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 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특히 창업 동기는 창업 후의 성공여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창업 동기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 내재적 동기 역시 심리적 특성으로서 타고난 기질이라 간과하지 말고 이를 강 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재적 동기 와 달리, 외재적 동기는 외부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의 체계적인 협 조를 통하여 창업보육과 같은 창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창업 분위기가 조 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결국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은 물론 창업동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업가 적 심리특성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관련정책들이 끊임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범정부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이상과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 계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동기의 선행변수로서 성 취욕구와 창업가정신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내적 통제소재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요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보다 폭 넓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을 내포한 창업가정신 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의 구 성개념을 경쟁적 적극성과 같은 요인들을 확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동기만을 매개 변수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양 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창업보육 기관에 입주한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와 같은 보 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고난 기질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특 성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환경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을 통하여 보다 발전 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REFERENCE**

- Alan, C. & Malin, B.(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Alderfer, C. P.(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 142-175.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ur (2nd ed.), Berkshire,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Bahn, S. S., Bae, G. W. & Jang, S. H.(2013). The effects of individual invento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y*, 26(6), 2655-2677.
- Baron, R.(2008).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328-340.
-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292-303.
-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 Becherer, R. C. & Maurer, J. G.(1999).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8-36.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Summer, 63-74.
- Brockhaus, R. H.(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Brockhaus, R. H. & Horwitz, P. S.(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25-48.
- Brush, C. G.(1992). Research on woma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ummer, 5-30.
- Carsrud, A. & Brannback, M.(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rant, M. J.(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87-90.
- Douglas, E. J. and Shepherd, D. A.(1999). Entrepreneurship

- as a utility maximizing respons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3), 231-51.
- Engel, G. V.(1970). Professional autonomy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1), 12–21.
- Famous, I. & Okafor, C.(2008). Assessment of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s among academics, Ife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16(2), 173-193.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_\_\_\_\_(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32
- Gu, D. M.(2010). Marketing & statistics, Hakhyunsa, 348-351.
  Haney, W. V.(1992).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ext and cases (6th ed.), Richard D. Irwin, Inc., 185.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 Jones, G. R.(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s'adjustments to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 262-279.
- Koh, H. C.(1996).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 study of Hong Kong MBA student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12-25.
- Kolvereid, L.(1996). Prediction of employment status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47-56.
- Kolvereid, L. & Isaksen, E.(2006), New business start-up and subsequent entry into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6), 866-85.
- Kropp, F., Lindsay, N. J. & Shoham, A.(200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business venture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4(2), 102-117.
- Krueger, N. F. J.,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411-432.
- Kuratko, D. F. & Hodgetts, R. M.(2007). *Entrepreneurship-theory, process and practice (7th ed.)*, Canada: Thomson, South-Western.
- Lee, H. S. & Lim, G. H.(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6.0, Bobmumsa, 189-1980.
- Lee, S. S.(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motiv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in woman owned busines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8(4), 45-64.
- Leffel, H.(2008),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PICMET 2008 Proceedings, Cape Town, July.
- Leung, K. Y., Lo, C. T., Sun, H. & Wong, K. F.(2012).

- Factors influencing engineering stud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on-campus entrepreneurial activiti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5, 1-19.
- Long, W. A., Tan, W. L. & Robinson, P. B. (1995).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vailable at: www.babson.edu/entrep/fer/papers95/
- Low, M. B. & MacMillan, I. C.(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 *Journal of Management*, 14(2), 139-161.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38.
- Malebana, M. J.(2014).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South African Rural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s and Behavioral Studies*, 6(9), 709-726.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an Nostrand, 512.
- \_\_\_\_\_\_(1962), Business drive and national achiev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40(4), 99-112. \_\_\_\_\_\_(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Mathews, J.(2008). Entrepreneurial process: A personalistic-cognitive platform model, *Journal of Decision Makers*, 33(3), 17-34.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 770-791.
- Mitchell, T. R. & Denis, D.(2003). *Motivation*, Handbook of Psychology, 12,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Naffziger, D. W., Hornsby, J. S. & Kuratko, D. F.(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 Naman, J. L. & Slevin, D. P.(1993). Entrepreneurship and the Concept of Fit: A Model and Empirical Tes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137-153.
- Park, K. S. & Ha, K. S.(2014). The effects of Korean and Korean-Chines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 motiv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61-70.
-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Pruett, M., Shinnar, R., Toney, B., Liopis, F. & Fox, J.(2009).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 cross-cultu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5(6), 571-594.
- Robert, H. F. & Alan, B. K.(1972). A validity study of scales to measure need achievement, need affiliation, impulsiveness and intellectually,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2, 147-154.
- Scheinder, C., Laspita, S., Brem, A., Chlosta, S. & Voigt, K. I.(2008). Founding intentions: A gender perspective,

-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4(4), 1-15.
- Schumpeter, J.(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sen, H.(2013). Personality or environment?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 Training*, 55(7), 624-640.
- Sexton, D. L. & Bowman, N. B.(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In Ronstadt, R., et al.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40-51.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79.
-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Shaver, K. G. & Scott, L. R.(1991), Person, process, choice: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23.
- Solesvik, M. Z.(2013).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ole of education major. *Education &Training*, 55(3), 253-271.
- Spreitzer, G. M.(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Taormina, R. J. & Lao, S. K.(2007). Measuring Chinese entrepreneurial motivation-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3(4), 200-221.
- Taormina, R. J. & Sammi, K. M. L.(2006). Measuring chinese entrepreneurial motivation: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3(4), 200-221.
- Timmons, J. A.(1999). *New venture creation, 5th ed.*, Homewood Irwin Van de Ven, A. H.(1992),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 Wang, C., Walker, E. A. & Redmond, J.(2006). Ownership motivation and strategical planning in small busines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2(4), 1-27.
- Wu, S., Matthews, L. & Dagher, G. K.(2007). Need for achievement, business goals, and entrepreneurial persistence, *Management Research News*, 30, 928-941.
- Yukl, G.(1990). *Skills for managers and lead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Yoo, Bong Ho\*

####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entrepreneur-lik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including start-up motivation in order to discover factors that would affect start-up intention which can be referred to as an origin of start-up vitalization and to discuss causal relations among the factors. In other words, the study took a look into how both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would influence start-up intention as focusing on mediating roles of start-up motivation.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a total of 181 samples of survey gathered from founders of these companies that had moved into a start-up support center. Findings of the analysis reported that first of all,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have positive effects on start-up motivation, an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two variables work as antecedent variables of start-up motivation. Second of all, start-up motivation is significantly connected to start-up intention, and that definitely proved precedence relation following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rd of all, mediating effects of start-up motivation on relations among start-up needs,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intention which are said to be cores of this study were observed. To sum up, the study learned that start-up motivation as a mediator contributes to how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would strengthen start-up intention.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se entrepreneur-lik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chievement needs, entrepreneurship and especially start-up motivation should be improved if anyone would like to increase start-up intention. Based on results presented above, the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relation to start-up intention.

Keywords: Achievement needs, Entrepreneurship, Start-up motivation, Start-up intention

\_

<sup>\*</sup>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bongho@dankook.ac.kr